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진실을 만나다-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광주 1인당 부채 1천만원 돌파 ▶2 | 패륜범죄 극성…가족이 무너진다 ▶6 | 실뱀장어 한마리에 7000원이라니 ▶10 | 박인비 LPGA 혼다 타일랜드 우승 ▶15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430호 1판 2013년 2월 25일 월요일 (음력 1월 16일)

박근혜 정부 출범…새 대통령에 바란다 ▶2·3·4·5면

국민대통합·지역균형 발전 진정성 보여달라

민생 꼼꼼히 챙기고 호남소외 상처 치유

지역현안사업 공약 임기내 꼭 실현해달라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새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왔던 경제민주화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 복지를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2·3·4·5면〉

또한, 광주·전남의 미래성장동력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차질 없는 완성과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여수 세계엑스포와 순천 정원박람회장 등을 연계한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공약도 임기 내 실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새 정부 인재발탁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편중인사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새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줄곧 강조했던 인사대탕평을 통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호남에서 강조했던 지속한 차별과 소외에 대한 호남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며 "국민대통합은 세대·성별·계층·이념 등으로 편 가르지 않고 두루 인정하며 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과 공직자들은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호남 차별과 실정을 거듭한 이명박 정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인사대탕평을 통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근로자들과 대학생들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증가, 청년 실업 등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정책 청사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균등한 기회보장을 이한 지역할당제 시행을 요구했다. 대학생 김휘원(여·26·전남대)씨는 "지역할당제가 전 정부에서 몇몇 공공기관을 통해 적용됐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는데, 새 정부는 지역할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새 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너무 부족한 만큼 국가의 근간인 농업을 살리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나오길 기대했다.

지역 문화계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새 정부가 해주길 기대했으며, 여전히 열악한 젊은 작가들에 대한 정부 지원과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취임식장에서 국방부 군악대가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오늘 취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국정비전 제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박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24일 취임식 행사가 열리는 국회에서는 최종 리허설이 진행됐으며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취임식은 식전행사에 이어 국민의례와 국무총리 식사, 취임선서, 의장대 행진과 예포발사, 당선인 취임사와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임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의 확충,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선 공약대로 양극화와 사회분열을 치유해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것임을 다짐하면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의 달성을 위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대 국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33차례의 보신각 타종 행사가 열리는 25일 0시를 기해 대통령의 권한을 공식 이양받는데 이어 당일 오전 23년간 살았던 서울 삼성동 자택을 떠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분향한 뒤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환송하는 것으로 취임식 일정을 마치고 국회에서 서강대교 입구까지 카퍼레이드를 펼친 뒤 광화문광장으로 옮겨 한복을 입고 '복주머니 개봉행사'에 참여한다. 이어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의 환영을 받으며 청와대에 들어간다.

박 대통령은 오후 4시께 세종문화회관에서 외교사절 등 국내외 각계대표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축연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돼지값 끝없는 폭락

전남지역 1000억 손실

kg당 2857원…생산비 66%

양돈농가당 1억이상 적자

최근 반년 간 돼지 가격이 30% 넘게 급락하면서 농가 한 곳당 1억원이 넘는 적자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남지역도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24일 대한한돈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한돈농가 6020곳의 적자 규모는 모두 6439억원으로 집계됐다. 농가 한 곳당 1억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라고 협회 측은 전했다. 전남의 한돈농가수는 1037곳으로 전체 농가 중 17.2%를 차지한다. 이들 농가의 적자규모를 산출하면 1099억원에 달한다.

한돈협회가 밝힌 전국 한돈농가들의 적자규모는 지난해 9월 656억원, 10월 1470억원, 11월 954억원, 12월 1080억원이었다. 올들어서는 적자규모가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1월 161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달에도 보름만에 66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돼지고기 값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농가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8월 kg당 평균 4139원에서 9월 3645원, 10월 3045원, 11월 3514원, 12월 3282원, 올해 1월 3003원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전남의 경우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의 최근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1kg에 2505원으로 1년 전 4128원보다 40%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국평균(2685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 지난달 돼지 도축두수가 147만두로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다 돈육 수입량도 2700만t으로 전달보다 34.7%나 급증하면서 비축물량이 넘쳐나 당분간 돼지고기 가격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돈협회 측은 올들어 돼지평균가격이 생산비의 66% 수준인 지육kg당 2857원에 머물며 두당 12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양돈농가의 80%이상이 도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14년간의 검사와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약력 -
- 광주 금호고, 서울대 졸업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9기)
- 제2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 미국 UNC 로스쿨 국비 연수
- 광주지방법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

변호사 김 준 성 올림

■ 업무개시 : 2013. 2. 14. ■ 개업소연 : 2013. 3. 7.(목) 오후 5시부터
■ 개업장소 : 광주 동구 지산동 714-20 광주지방변호사회관 303호(법원정문 앞)
■ 대표전화 : (062) 233-3030